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UCI]I804:24011-200000266446

2017년 8월

교육학석사(체육교육)학위논문

태권도 선수들이 인식하는 심판판정과 심리적 탈진과의 관계 분석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채 혜 선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태권도 선수들이 인식하는 심판판정과 심리적 탈진과의 관계 분석 연구

The Relationship Between Cognition of Referees's on psychological burnout of Taekwondo Athletes

2017년 8월 25일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채 혜 선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태권도 선수들이 인식하는 심판판정과 심리적 탈진과의 관계 분석 연구

지도교수 이 계 행

이 논문을 체육교육학석사 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채 혜 선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채혜선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 선 대 학 교 교수 윤 오 남 인

위 원 조 선 대 학 교 교수 이 계 행 인

위 원 조 선 대 학 교 교수 김 현 우 인

2017년 6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목 차

ABSTRACT

Ⅰ. 서 론 ····· 1

A. 연구의 필요성 ····· 1

B. 연구의 목적 ····· 3

C. 연구문제 ····· 4

D. 연구모형 ····· 5

E. 연구의 제한점 ····· 5

Ⅱ. 이론적 배경 ····· 6

A. 심판판정 인식 ····· 6

1. 일관성 ····· 6

2. 신속성 ····· 7

3. 공정성 ····· 8

4. 신뢰성 ····· 8

B. 심리적 탈진 ····· 9

Ⅲ. 연구방법 ····· 11

A. 연구대상 ····· 11

B. 연구도구 ····· 12

1. 심판판정 ····· 12

2. 심리적 탈진 ····· 13

3. 조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 14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C. 연구절차 ····· 18
D. 자료처리 ····· 20

Ⅳ. 연구결과 ····· 21
A. 심판판정에 대한 차이분석 ····· 21
1. 성별에 따른 차이 ····· 21
2. 소속에 따른 차이 ····· 22
3. 경력에 따른 차이 ····· 23
4. 경기력에 따른 차이 ····· 24
B. 심리적 탈진에 대한 차이분석 ····· 25
1. 성별에 따른 차이 ····· 25
2. 소속에 따른 차이 ····· 26
3. 경력에 따른 차이 ····· 27
4. 경기력에 따른 차이 ····· 28
C. 심판판정에 대한 인식이 심리적 탈진에 미치는 영향 ····· 29
1. 각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 ····· 29
2. 심판판정이 의욕상실에 미치는 영향 ····· 30
3. 심판판정이 정서적 고갈에 미치는 영향 ····· 31
4. 심판판정이 수행저하에 미치는 영향 ····· 32

Ⅴ. 논 의 ····· 33
A. 배경변인에 따른 심판판정 인식 차이 ····· 33
B. 심판판정에 대한 인식이 심리적 탈진에 미치는 영향 ····· 36

Ⅵ. 결 론 ····· 39

참고문헌 ····· 4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목 차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1
표 2. 심판판정에 대한 인식 설문지 구성 ····· 12
표 3. 심심리적 탈진 설문지 구성 ····· 13
표 4. 심판판정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 15
표 5. 심판판정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 ····· 16
표 6. 심리적 탈진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 17
표 7. 심리적 탈진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 ····· 18
표 8. 성별에 따른 차이 결과 ····· 21
표 9. 소속에 따른 차이 결과 ····· 22
표 10. 경력에 따른 차이 결과 ····· 23
표 11. 경기력에 따른 차이 결과 ····· 24
표 12. 성별에 따른 심리적 탈진 분석결과 ····· 25
표 13. 소속에 따른 일원분산분석 결과 ····· 26
표 14. 경력에 따른 분석결과 ····· 27
표 15. 경기력에 따른 차이 결과 ····· 28
표 16. 측정변수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 29
표 17. 의욕상실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 30
표 18. 정서적 고갈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 31
표 19. 수행저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 32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 림 목 차

그림 1. 연구모형 ····· 5
그림 2. 연구절차 ····· 19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Cognition of Referees's on psychological burnout of Taekwondo Athletes

Chae Hye Seon
Advisor : Gyae- Haeng, Lee, Ph.D.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the relation between Taekwondo athletes' perceived referee judgment and their psychological burnout. To achieve that, this researcher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with 176 Taekwondo athletes in middle school, high school, and university who are members of Korea Taekwondo Association. Independent sample t-test, one-way ANOVA,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drawn result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there were differences in Taekwondo athletes's referee judgment and their psychological burnout depending on backgrounds.

Regarding the difference in referee judgment by gender, male athletes more highly perceived referee judgment than female athletes. Regarding the difference by education level, the athletes in middle school more highly perceived referee judgment than those in university.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There was no difference depending on career and athletic performance.

Secondly, regarding the difference in psychological burnout by gender, female athletes had more psychological burnout than male ones. With regard to the difference by education level, the more they were educated, the higher they had psychological burnout. Regarding the difference by career, the more career they had, the higher they had psychological burnout. Regarding the difference by athletic performance,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excellent athletes and general athletes.

Thirdly, referee judgment didn't influence psychological burnout.

Although referee judgment caused stress, it didn't lead to psychological burnout. That is because social support like encouragement is provided.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Ⅰ.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스포츠에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체력, 기술, 심리, 상해 등 다수 존재한다. 그중 가장 접근하기 힘든 요인은 아마 심리적 요인일 것이다. 심리적 요인은 눈으로 보이지 않고 선수스스로 느끼는 부분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 접근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윤희성, 2014). 특히 태권도 선수들의 심리적 요인과 직결되는 부분이 바로 심판판정이다. 심판의 판정 불신은 선수 개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로 인해 경기 운영이나 결과, 나아가 선수생명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미 매스컴을 통해 많이 보도된 내용으로 2013년 태권도 경기에서 심판판정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억울함으로 호소하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태권도계는 물론 체육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임근석, 2016).

오늘날 스포츠는 경기력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기술 및 체력에 비해 경기에 치중하는 심리에 큰 관심과 초점을 두고 있다(조인철, 김영훈, 이병기, 2002). 즉 선수들은 경기상황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부정적인 요소를 통제하거나 조절하여, 평소의 기량을 발휘하느냐의 문제가 꾸준하게 대두되고 있다(정승태, 박동철, 2008). 과거 이러한 문제는 체력, 기술, 기능발달 등에서 찾으려 하였으나, 점차적으로 선수들의 기량이 평준화되면서 심리적인 요인들이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다(김승철, 2005). 사실 태권도는 끊임없이 지적되어 온 심판판정의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전자호구 개발과 비디오 판정이라는 과학적 기법을 적용하여 경기마다 시비가 되고 있는 심판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였다(박병진, 201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러나 많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심판판정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심판판정에 대한 연구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심판의 자질 및 태도에 관한 선수들의 인식은 선수들의 의식 즉, 심판 판정에 대한 신뢰도 및 공정성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었으며(김사엽, 김희중, 2000), 심판의 불공정한 판정으로 인해 선수들의 경기력이 저하된다고 보고하였고(정현도, 2011), 심판의 태도는 경기 영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임근석(2016)은 태권도 선수들이 인식하는 심판판정과 경기력은 관련성이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을 지도자와 선수가 인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이러한 심판판정의 불신은 경기불안과 걱정 등으로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운동수행을 하지 못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은 운동을 중단하거나 영구적으로 완전히 포기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김윤상, 2015). 이러한 부분을 종합해 보면 태권도 선수들이 지각하는 심판판정이 경기력은 물론 나아가 심리적 탈진, 즉 선수생활을 포기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탈진은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정서적 피로 상태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의 축적이라 할 수 있다(김선수, 2010). 또한 스트레스와 탈진은 계속되는 스트레스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주어진 상황을 극복할 개인적 능력의 한계에서도 비롯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탈진을 병이나 상해로 설명할 수 없는 수행의 저하로 표현하였고, 수행이나 연습 등 신체적 활동이 휴식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발생한다고 하였다(Marijeanne, 2008). 또한 탈진은 개인마다 증상이나 징후가 다른데, 휴식시 심박수 증가, 긴장, 떨림, 상해, 성취와 열정감소 등의 신체적·정신적 증상 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증상이나 징후의 원인이 만성적이 되기 전에 잘 예방하고 처치하면 탈진이라는 부정적 단계를 거치지 않게 되거나, 겪게 되더라도 보다 체계적으로 극복 할 수 있다(김선수, 2010). 그러나 태권도 현장에서는 탈진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아 지도자, 선수들 대부분이 자신이 경험하거나 관찰하는 것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탈진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못한다. 엘리트 선수들이 탈진으로 인해 태권도를 포기하게 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좋은 자질을 갖춘 태권도 선수들을 탈진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필요한 과제이다.

사실 심판의 판정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관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여 공정한 판정을 내리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현실적으로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판정의 오차를 완벽히 제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임근석, 2016). 하지만 공정한 심판판정이 이루어진다면 직접적으로 느끼는 선수는 물론 재미있고 흥미있는 경기를 운영하여 경기 자체의 질을 높이는 결과를 불러 올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태권도 선수들이 인지하는 심판판정 인식이 선수들의 심리적 탈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여 불공정한 판정을 줄이고 선수들의 탈진을 예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 판단된다.

B.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태권도 선수들이 인식하는 심판판정이 심리적 탈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는 것이다. 목적 달성을 통해 선수들이 인식하는 심판판정을 좀 더 의미있게 분석하고 나아가 선수들이 오랫동안 운동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할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C. 연구문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태권도 선수들의 배경변인에 따라 심판판정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성별에 따라 심판판정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소속에 따라 심판판정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경력에 따라 심판판정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경기력에 따라 심판판정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2. 태권도 선수들의 배경변인에 따라 심리적 탈진에 차이가 있는가?
 -성별에 따라 심리적 탈진에 차이가 있는가?
 -소속에 따라 심리적 탈진에 차이가 있는가?
 -경력에 따라 심리적 탈진에 차이가 있는가?
 -경기력에 따라 심리적 탈진에 차이가 있는가?

3. 태권도 선수들이 인식하는 심판판정은 탈진에 영향을 미치는가?
 -심판판정이 의욕상실에 영향을 미치는가?
 -심판판정이 정서적 고갈에 영향을 미치는가?
 -심판판정이 수행저하에 영향을 미치는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D. 연구모형

본 연구는 태권도 선수들의 인식하는 심판판정이 심리적 탈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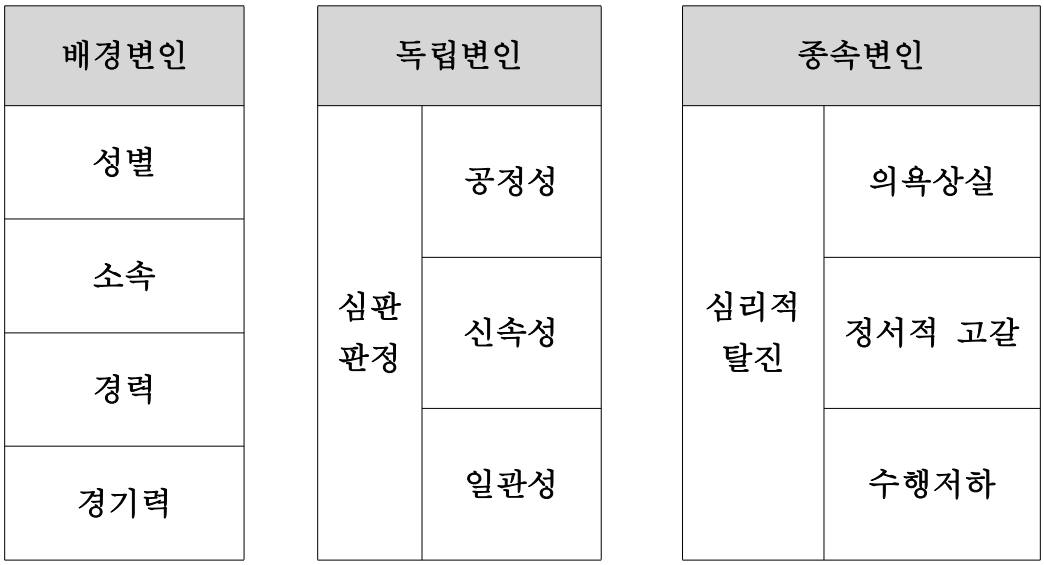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E.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1) 본 연구는 특정대회에서 조사되었기 때문에 일반화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2)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수거하였으나 당일 대상자들의 심리적 상태는 고려하지 않았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Ⅱ. 이론적 배경

A. 심판판정 인식

언제나 심판은 공정한 판정과 함께 누구라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경기진행을 하여야한다. 사람으로서 시각과 경험을 가지고 판정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심판이 로봇이 아닌 이상 언제나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렇지만 심판의 역할은 중요시 되고 있으며 심판판정에 따라 선수들의 진로나 미래가 결정이 될 수도 있다(윤희성, 2014).

본 연구에서는 임근석(2016)의 논문을 바탕으로 태권도 선수들이 인식하는 심판판정을 크게 4가지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일관성

일관성의 사전적 의미는 “하나의 방법이나 태도로써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성질”을 의미한다. 태권도에서 심판간의 판정은 어떤 비슷한 상황에서도 같게 나와야 하며 양측의 선수에게 규칙이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선수, 코치 그리고 관중들은 심판이 일관성을 가지고 판정을 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때에는 심판을 비난하게 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일관성이 없는 판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져온다고 보고되고 있다(안영선, 2014).

1)코치들은 짜증을 내고 심판의 능력을 불신하게 된다.

2)심판들은 자신이 이미 수행한 실수에 대한 보상으로 손해 본 선수에게 유리한 판정을 하려고 노력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경기에서 이러한 불신 및 보상 작용은 반복적으로 작용하게 되며 결국 경기의 질을 떨어뜨리고 선수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여러 대의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반복되는 장면으로 인해 시청자들 또한 심판의 자질에 대해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판들의 일관성 있는 판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태권도에서 심판은 선수들의 빠른 동작을 관찰해야 하며 전자호구를 통해 나타나는 점수와 주관적 판정과의 일치성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판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심판들은 지도자와 선수들이 신뢰하는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순발력 있는 결정과 그에 따른 일관성 있는 규칙 적용이 필요하다(유인영, 모창배, 2010).

2. 신속성

태권도경기에 심판들의 신속한 판정은 경기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2009년부터 적용된 비디오 판정은 정확성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신속성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박빙의 승부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의 비디오 판정은 선수들의 경기흐름을 끊을 수 있어 자칫 상대팀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임근석, 2016). 이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새로 도입된 태권도 비디오 판독 과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는데, “태권도 경기 중 점수를 얻었다고 생각할 때 혹은 상대의 공격이 성공하지 못해다고 여겨질 때 요청할 수 있는 비디오 판독제 과정이 복잡하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스포츠 조이, 2012년 8월 12일 보도자료). 또한 심판의 결정은 가능하면 행동을 본 즉시 이루어 져야하며, 이것은 항상 주저함이 없이 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자신이 본 상황에 따라 판단할 충분한 여유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안영선, 2014). 이렇듯 태권도 경기에서 정확한 심판판정도 중요하지만 경기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신속성 또한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공정성

심판판정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다. 공정성의 사전적 의미는 "평가결과가 평가받는 특성 이외의 요인, 즉 평가대상이 속하는 특정집단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 않게 나오는 정도"를 말한다. 스포츠 경기는 각 경기 특성에 따라 별도의 경기규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심판 판정의 불공정 유발 등을 보면 모든 종목이 유사한 요인에 의하여 심판판정에 대한 비판을 받게 됨을 볼 수 있다. 한 예로 축구경기에 있어서 발생하는 공정치 못한 심판판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 요인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스포츠 종목에서 공통적으로 심판에게 요구하는 것은 학연, 지연 등의 주변 환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판정이다(김상겸, 문재태, 2014).

4. 신뢰성

심판들은 코치나 선수들과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한 신뢰감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은 의사전달로 심판이 선수나 코치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전달을 수행하며 선수들은 심판의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판정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불평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심판들은 또한 선수나 코치들을 존경하고 예의를 갖추어 줌으로써 서로 간의 신뢰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심판들은 심판을 수행하는 중에 친절하고 우호적으로 선수들을 대하여야 하며 항상 그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어느 한편에 치우친다는 오해를 야기 시키기 말아야 한다(박대성, 2007).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B. 심리적 탈진

탈진의 원인에 대해서는,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관점,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는 관점, 이 두 가지 관점을 포함한 복합적인 관점이다(김선수, 2010). 탈진을 개인적인 문제로 인식할 때, 탈진의 원인은 환경과 무관하며, 스트레스가 탈진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각각의 선행연구들을 분석해보면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을 문제 삼고 있으며(Ferudenberger, 1974), 탈진을 개인이 다룰 수 없는 과도하고 지속적인 스트레스의 결과라고 하며,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에 따라 탈진으로 이루어 질수 있다고 보았다(Selye, 1979). 결론적으로 개인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대처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탈진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탈진이 조직의 요구와 개인의 능력사이의 괴리감 때문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그것은 자신이 성취한 것에 대한 불만족감도 탈진 현상의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Farber, 1983).

이러한 느낌은 자괴감이나 실패 감, 낙담으로 이어 지기도 하며, 이러한 현상은 직업을 가진 일반인들의 업무 능률이 떨어질 때나 운동선수가 성적이 부진할 때 볼 수 있다. 그리고 탈진은 일시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서 장기간에 걸친 스트레스 과정의 결과이기도 하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탈진은 3가지 증상으로 나뉘는데 먼저 정서적 탈진이다. 정서적 탈진은 개인의 정서적 수용성의 한계를 초과하는 과부화된 패턴을 말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과도하게 정서에 노출되게 되면 이용할 만한 만족 원을 찾을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이런 사람은 정서적인 탈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Maslach, 1976; 김선수, 2010 재인용).

두 번째, 비인격화는 자신이 소외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라 냉담하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비인격적인 형태의 행동패턴을 보이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게 된다(Maslach, 1976; 김선수, 2010 재인용).

세 번째로 개인적 성취를 감소시키게 되는 것인데, 이런 사람은 타인에 대한 죄의식이 강하고 자신의 모든 것은 실패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비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탈진은 생리적, 심리적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생리적증상은 불면증, 순환기 질병, 체중감소, 성욕 및 식욕감소가 있고 심리적인 증상으로는 정서 불안형상의 증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고갈을 인식하는 횟수의 증가, 자긍심 감소, 다른 사람과의 개인적 상호작용의 질적인 면이 부정적으로 변화함, 장기적인 매일 매일의 스트레스에 부정적인 반응 등이 있다(Maslach, 1976; 김선수, 2010 재인용).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탈진의 증상을 불면증, 두통, 이유 없는 피로, 긴장의 증가 등의 신체적인 증상과 무관심, 무감동, 우울, 불만족, 등의 정신적 증상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증상들은 에너지를 고갈시켜, 질병에 걸릴 가능성을 높게 하며, 운동선수와 같은 경우 운동수행의 저하를 가지고 올수 있다고 하였다(Smith, 1986).

운동선수들과 같은 신체적인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탈진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운동선수들의 관점에서 의하면 운동선수가 탈진에 이르면 극도의 고독감을 느낄 수 있으며, 활동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고, 우울이나 무력감, 분노를 보이게 될 수 있다고 하였다(Heyman, 1986).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이 보여 주듯 엘리트 선수들의 심판판정과 탈진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심판판정의 불신이 높을수록 탈진 의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태권도 선수들이 인식하는 심판판정과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다양한 연구가 요구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Ⅲ. 연구 방법

A.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7년 현재 대한태권도연맹에 등록된 중학부, 고등부, 대학부 선수들을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표집은 집락표집 방법으로 184명의 선수들 중, 하나의 문항으로 집약 또는 이중기입 등 불성실하게 응답하여 신뢰성이 결여된 8명의 자료는 제외한 후, 총 176명의 선수들의 자료를 채택하였다. 경기력의 구분은 최근 전국대회 3위 이상 입상실적에 따라 분류하였고 구체적인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76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137	77.8
	여자	39	22.2
소속	중학부	38	21.6
	고등부	95	54.0
	대학부	43	24.4
경기력	우수선수	110	62.5
	일반선수	66	37.5
운동경력	5년이하	99	56.3
	6-8년	54	30.7
	9년 이상	23	13.1
	합계	176	100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B. 연구도구

1. 심판판정

본 연구의 심판판정 인식에 대한 척도는 박대성(2007)과 윤병인(2014)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대상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공정성, 신속성, 일관성, 신뢰성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요인에 5개의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설문지는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의 5점 Likert 척도로 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매우 그렇다'까지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판정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며 구체적인 구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심판판정에 대한 인식 설문지 구성

변 수		요 인	문항 수	문항번호
독립 변수	심판판정	공정성	5	1, 2, 3, 4, 5
		신속성	5	6, 7, 8, 9, 10
		일관성	5	11, 12, 13, 14, 15
		신뢰성	5	16, 17, 18, 19, 20
합 계			20문항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심리적 탈진

본 연구에서 사용한 탈진 설문지는 김선수(2010)의 14문항으로 구성된 무용수의 탈진 질문지(Dancer Burnout Questionnaire-DBQ)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김선수(2010)의 연구에서 탈진에 대한 문항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단순상관계수와 부분상관계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전체자료에 대한 표본 적합도를 검증하는 KMO(Kaiser-Meyer-Olkin)값이 .793로 질문지의 표본 접합도가 인정됨을 확인되었다. 이 항목들은 정서적 고갈, 수행저하, 의욕상실 등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 되었으며, 14개 문항의 5점 Likert척도로 '항상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으로 총점 범위는 14~70점이다. 구체적인 문항 구성은 <표 3>과 같다.

표 3. 심리적 탈진 설문지 구성

변 수		요 인	문항 수	문항번호
종속 변수	심리적 탈진	의욕상실	8	7, 8, 9, 10, 11, 12, 13, 14
		정서적고갈	3	1, 2, 3
		수행저하	3	4, 5, 6
합 계			14문항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조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1) 심판판정 인식 타당도 검증

심판판정 인식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변인들의 최소의 요인을 추출하는 데 목적을 둔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직교회전(Varimax Rotation)방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자료의 적합성은 KMO-Test(표본 적절성 측정치)와 고유치(Eigenvalue) 1 이상 되는 요인의 수, 그리고 요인적재치 .5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 1이상의 요인이 3개로 명확하게 추출되었으나 요인적재치 .4의 기준을 상회하지 못한 두 개의 문항(문항15, 문항17)을 삭제한 후, 2차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 개의 문항(문항11)이 다른 요인과 중복적재치를 보여 삭제한 후, 3요인 17문항이 통계적으로 적합하게 추출되었다.

분석 자료의 적합도를 살펴보기 위한 KMO지수는 일반적으로 .6이상이며 수집된 표본데이터가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설명할 때, 심판판정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자료의 KMO지수는 .905, 유의수준 .001로서 변수의 선정이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4>. 그리고 설명하는 분산은 각각 32.834%, 17.978%, 14.124% 총 설명변량은 64.936%이며, 요인적재치는 최소 .672에서 .899까지 분포되어 측정도구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4. 심판판정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문 항	요 인			공통성
	일관성	공정성	신속성	
심판판정13	.830			.724
심판판정12	.813			.734
심판판정14	.801			.711
심판판정18	.785			.689
심판판정16	.754			.660
심판판정19	.710			.639
심판판정20	.699			.601
심판판정2		.899		.892
심판판정1		.852		.778
심판판정3		.723		.723
심판판정4		.714		.698
심판판정5		.698		.657
심판판정9			.826	.706
심판판정10			.756	.693
심판판정6			.716	.659
심판판정7			.694	.648
심판판정8			.672	.614
전체	2.745	2.341	1.899	
분산(%)	32.834	17.978	14.124	
누적(%)	32.834	50.812	64.936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905				
Bartlett Test of Sphericity=3025.925, df=170, Significance=.000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심판판정 인식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심판판정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하위 척도별 일치도 검사방법인 신뢰도 분석(cronbach's α)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하위 척도별 신뢰도 계수는 일관성(cronbach's α=.845), 공정성(cronbach's α=.723), 신속성(cronbach's α=.796)이 신뢰로운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6을 상회하면 수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본 연구의 심판판정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자료의 내적 일관성이 확보되었다(임근석, 2016).

표 5. 심판판정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

요 인		항 목	Cronbach's α
심판판정	일관성	12,13,14,16,18,19,20	.845
	공정성	1,2,3,4,5	.723
	신속성	6,7,8,9,10	.796
	전체		.832

3) 심리적 탈진에 대한 타당도 검증

심판판정 인식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변인들의 최소의 요인을 추출하는 데 목적을 둔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직교회전(Varimax Rotation)방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자료의 적합성은 KMO-Test(표본 적절성 측정치)와 고유치(Eigenvalue) 1이상 되는 요인의 수, 그리고 요인적재치 .5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1차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 1이상 3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모든 문항에서 요인을 설명하는 수치를 상회하여 3요인 14문항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통계적으로 적합하게 추출되었다. 구체적으로, 각 요인의 설명 분산은 34.254%, 19.478%, 16.977%, 총 설명분산은 70.709%이며, 요인적재치는 최소 .613에서 최대 .814까지 세 개의 요인이 기준치 .5를 상회하므로 심리적 탈진을 측정하는 자료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표 6>.

표 6. 심리적 탈진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문 항	요 인			공통성
	의욕상실	정서적고갈	수행저하	
탈진7	.814			.779
탈진8	.785			.756
탈진12	.750			.730
탈진13	.741			.693
탈진14	.730			.658
탈진9	.684			.631
탈진11	.659			.610
탈진10	.613			.564
탈진2		.799		.701
탈진3		.713		.639
탈진1		.680		.602
탈진4			.803	.836
탈진5			.754	.794
탈진6			.722	.715
전체	4.324	2.214	1.993	
분산(%)	34.254	19.478	16.977	
누적(%)	34.254	53.732	70.709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935				
Bartlett Test of Sphericity=2778.45, df=105, Significance=.000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 심리적 탈진에 대한 신뢰도 검증

심리적 탈진에 대한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표 7>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의욕상실 .734, 정서적고갈 .810, 수행저하 .791으로 기준치 .6을 상회하여, 인지된 경기력에 대한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 심리적 탈진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

요인		항목	Cronbach's α
심리적 탈진	의욕상실	7, 8, 9, 10, 11, 12, 13, 14	.734
	정서적고갈	1, 2, 3	.810
	수행저하	4, 5, 6	.791

C. 연구절차

본 연구는 기존에 연구되었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설문지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제작된 설문지는 스포츠 심리학 박사 1인, 태권도 지도자(대학지도자) 2인의 전문가에게 설문지의 구성 및 문항의 난이도를 검토 및 논의하는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설문지를 보완하였다. 보완된 설문지는 G광역시 소재한 대학교 태권도 선수 20명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하였고 제작된 문항들은 선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쳤다.

최종 확정된 설문지는 2017년 제회 전국체육대회에 연구자가 직접 참여하여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부 선수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설명 한 후, 동의를 구하고 직접 배부 및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일부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8부를 제외하였고,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본 연구목적에 적합한 통계절차를 시행하였다.

선행연구와 문헌고찰을 통한 자료수집

↓

설문지 제작 및 내용타당도 검증(전문가분석)

↓

예비조사 실시

↓

설문지 동의 후, 배부 및 회수

↓

수집된 자료 코딩

↓

자료 분석

↓

결과 해석 및 논문 작성

그림 2. 연구절차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D. 자료처리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PC+ WIN 21.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모든 통계의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경변인에 따른 태권도선수들의 심판판정에 대한 인식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집단 간 차이는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증은 Scheffe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배경변인에 따른 태권도선수들의 심리적 탈진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집단 간 차이는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증은 Scheffe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태권도 선수들의 심판판정에 대한 인식과 심리적 탈진의 하위요인 간 상호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후, 심판판정에 대한 인식이 선수들의 심리적 탈진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Ⅳ. 연구 결과

A. 심판판정에 대한 차이분석

1. 성별에 따른 차이

태권도 선수들의 성별에 따른 판정인식에 대한 차이는 <표 8>과 같다.

표 8. 성별에 따른 차이 결과

변 인		성별 따른 차이			
		남(n=137)	여(n=39)	t	p
심판판정	일관성	3.39±.84	3.49±.87	.711	.478
	공정성	3.62±.86	3.32±.85	1.955	.049
	신속성	3.69±.75	3.69±.56	.009	.993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심판판정 차이는 공정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반면 일관성과 신속성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공정성에서 남자가 M=3.62, 여자가 M=3.32로 남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1.955, p<.05). 즉 성별에 따라 공정성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소속에 따른 차이

소속에 따른 태권도선수들의 심판판정 인식의 차이는 <표 9>와 같다.

표 9. 소속에 따른 차이 결과

변 인		경력구분	n	M±SD	df	F	p	post-hoc
심판판정	일관성	중등부	38	3.74±.80	2	2.806	.063	
		고등부	95	3.62±.67				
		대학부	43	3.67±.57				
	공정성	중등부	38	3.83±.75	2	2.505	.085	
		고등부	95	3.50±.91				
		대학부	43	3.44±.80				
	신속성	중등부	38	3.83±.78	2	3.858	.023	A>C
		고등부	95	3.74±.67				
		대학부	43	3.44±.60				

A=중등부, B=고등부, C=대학부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속에 따른 심판판정 차이는 신속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반면 일관성과 공정성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신속성에서 중등부가 M=3.83, 대학부 M=3.44로 중등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3.858, p<.05). 즉 소속에 따라 신속성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경력에 따른 차이

경력에 따른 태권도 선수들의 심판판정 인식에 대한 차이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경력에 따른 차이 결과

변 인		경력구분	n	M±SD	df	F	p	post-hoc
심판판정	일관성	5년이하	99	3.56±.86	2	1.335	.266	
		6-8년	54	3.38±.73				
		9년이상	23	3.31±.87				
	공정성	5년이하	99	3.59±.92	2	.216	.806	
		6-8년	54	3.50±.70				
		9년이상	23	3.54±.96				
	신속성	5년이하	99	3.78±.70	2	1.864	.158	
		6-8년	54	3.56±.66				
		9년이상	23	3.60±.82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력에 따른 심판판정 차이는 3가지 하위요인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력에 따라 심판판정 인식차이는 없음을 알 수 있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 경기력에 따른 차이

경기력에 따른 태권도선수들의 심판판정 인식차이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경기력에 따른 차이 결과

변 인		경기력 따른 차이				
		우수(n=66)	일반(n=110)	df	t	p
심판판정	일관성	3.40±.88	3.49±.79	174	.367	.714
	공정성	3.48±.83	3.60±.88	174	.895	.372
	신속성	3.66±.76	3.71±.68	174	.468	.640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기력에 따른 심판판정 차이는 3가지 하위요인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기력에 따라 심판판정 인식차이는 없음을 알 수 있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B. 심리적 탈진에 대한 차이분석

1. 성별에 따른 차이

태권도 선수들의 성별에 따른 심리적 탈진에 대한 차이 결과는 <표 12>와과 같다.

표 12. 성별에 따른 심리적 탈진 분석결과

변 인		성별 따른 차이			
		남(n=137)	여(n=39)	t	p
심리적 탈진	의욕상실	2.61±0.92	2.81±1.06	-2.278	.024
	정서적 고갈	3.12±1.10	3.93±1.09	-4.010	.000
	수행저하	3.01±1.08	3.51±1.04	-2.555	.011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심리적 탈진 차이는 3가지 하위요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욕상실은 남자가 M=2.81, 여자가 M=2.81로 여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t=−2.278, p<.05), 정서적 고갈은 남자가 M=3.12, 여자가 M=3.93로 여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4.010, p<.05). 수행저하에서도 남자(M=3.01)가 여자(M=3.51)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에 따라 심리적 탈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소속에 따른 차이

소속에 따른 태권도선수들의 심리적 탈진에 대한 차이는 <표 13>과 같다.

표 13. 소속에 따른 일원분산분석 결과

변 인		경력구분	n	M±SD	df	F	p	post-hoc
심리적 탈진	의욕 상실	중등부	38	2.38±1.06	2	24.679	.000	A<B B<C
		고등부	95	2.72±.99				
		대학부	43	3.76±.71				
	정서적 고갈	중등부	38	2.99±1.08	2	19.919	.000	A<B B<C
		고등부	95	3.03±1.08				
		대학부	43	4.17±.89				
	수행 저하	중등부	38	2.62±1.04	2	21.824	.000	A<B B<C
		고등부	95	2.95±1.03				
		대학부	43	3.95±.79				

A=중등부, B=고등부, C=대학부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속에 따른 심리적 탈진 차이는 3가지 하위요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욕상실은 중등부(M=2.38)와 고등부(M=2.72)보다 대학부(M=3.76)가 높았으며(f=24.679), 정서적 고갈에서도 중등부(M=2.99)와 고등부(M=3.03)보다 대학부(M=4.17)가 높았다(f=19.919). 수행저하에서도 중등부(M=2.629)와 고등부(M=2.95)보다 대학부(M=3.95)가 높았다(f=21.824). 즉 소속에 따라 심리적 탈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경력에 따른 차이

경력에 따른 태권도 선수들의 심리적 탈진에 대한 차이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 경력에 따른 분석결과

변 인		경력구분	n	M±SD	df	F	p	post-hoc
심리적 탈진	의욕 상실	5년이하	99	2.61±1.03	2	9.488	.000	A<C
		6-8년	54	3.10±.89				
		9년이상	23	3.35±1.07				
	정서적 고갈	5년이하	99	3.04±1.09	2	6.122	.003	A<C
		6-8년	54	3.62±.95				
		9년이상	23	3.66±1.20				
	수행 저하	5년이하	99	2.79±1.01	2	13.788	.000	A<C
		6-8년	54	3.69±1.06				
		9년이상	23	3.20±.91				

A=5년이하, B=6-8년, C=9년이상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력에 따른 심리적 탈진 차이는 3가지 하위요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욕상실은 5년 이하(M=2.61)보다 9년 이상(M=3.35)이 높았으며(f=9.488), 정서적 고갈에서도 5년 이하(M=3.04)보다 9년 이상(M=3.66)이 높았다(f=6.122). 수행저하에서도 5년 이하(M=2.79)보다 9년 이상(M=3.69)이 높았다(f=13.788). 즉 경력에 따라 심리적 탈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 경기력에 따른 차이

경기력에 따른 태권도선수들의 심리적 탈진에 대한 차이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 경기력에 따른 차이 결과

변인		경기력 따른 차이				
		우수(n=66)	일반(n=110)	df	t	p
심리적 탈진	의욕 상실	2.97±1.19	2.86±1.00	174	-.664	.508
	정서적 고갈	3.40±1.19	3.24±1.12	174	-.869	.386
	수행 저하	3.26±1.13	3.04±1.05	174	-1.299	.196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기력에 따른 심리적 탈진 차이는 3가지 하위요인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기력에 따라 심리적 탈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C. 심판판정에 대한 인식이 심리적 탈진에 미치는 영향

1. 각 하위요인 간 상관분석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전 하위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 측정변수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일관성	공정성	신속성	의욕상실	정서적고갈	수행저하
일관성	1	.798**	.757**	-.207**	-.146	-.147
공정성		1	.759**	-.206**	-.183*	-.160*
신속성			1	-.171*	-.155*	-.162*
의욕상실				1	.671**	.764**
정서적고갈					1	.789**
수행저하						1

*P<.05, **P<.01

독립변수인 심판판정에 대한 상관계수는 r=757부터 r=.798까지 정(+)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속변수인 심리적 탈진에 대한 상관계수는 r=-.146부터 r=.789까지 상관을 보이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계수는 r=-.146부터 r=-.207까지 부(-)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독립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기준인 .8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심판판정이 의욕상실에 미치는 영향

심판판정에 대한 인식이 의욕상실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하여 측정 변인들 간의 자기상관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Durbin-Watson값은 1.554로 확인되어, 자기상관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의욕상실에 대한 예측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입력방법을 선택하여 분석되었으며, <표 17>과 같이 나타났다.

표 17. 의욕상실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P
의욕상실	상수	3.920	.424		9.256	.000
	공정성	-.157	.173	-.122	-.909	.365
	신속성	-.143	.167	-.115	-.858	.392
	일관성	.012	.187	.008	.064	.949
R2(adj. R2)=.218(.048), F=2.866, P=.038 Durbin-Watson= 1.554						

<표 17>의 결과와 같이 전체모형의 F통계값은 2.866, 유의확률 .038로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21.8%(4.8%)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영향력 검증에서는 심판판정이 의욕상실에 미치는 요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심판판정이 정서적 고갈에 미치는 영향

심판판정에 대한 인식이 정서적 고갈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하여 측정 변인들 간의 자기상관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Durbin-Watson값은 1.672로 확인되어, 자기상관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정서적 고갈에 대한 예측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입력방법을 선택하여 분석되었으며, <표 18>과 같이 나타났다.

표 18. 정서적 고갈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P
정서적 고갈	상수	4.259	.455		9.349	.000
	공정성	.025	.186	.018	.133	.894
	신속성	-.219	.180	-.165	-1.217	.225
	일관성	-.070	.201	-.044	-.350	.727
R2(adj. R2)=.185(.034), F=2.037, P=.111 Durbin-Watson= 1.672						

<표 18>의 결과와 같이 전체모형의 F통계값은 2.037, 유의확률 .111로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모형의 설명력은 18.2%(3.4%)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영향력 검증에서는 심판판정이 정서적 고갈에 미치는 요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 심판판정이 수행저하에 미치는 영향

심판판정에 대한 인식이 수행저하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하여 측정 변인들 간의 자기상관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Durbin-Watson값은 1.841로 확인되어, 자기상관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수행저하에 대한 예측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입력방법을 선택하여 분석되었으며, <표 19>와 같이 나타났다.

표 19. 수행저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P
수행저하	상수	4.060	.433		9.366	.000
	공정성	-.020	.177	-.015	-.112	.911
	신속성	-.101	.171	-.080	-.590	.556
	일관성	-.137	.191	-.090	-.719	.473
R2(adj. R2)=.172(.030), F=1.746, P=.159 Durbin-Watson= 1.841						

<표 19>의 결과와 같이 전체모형의 F통계값은 1.746, 유의확률 .159로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모형의 설명력은 17.2%(3.0%)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영향력 검증에서는 심판판정이 수행저하에 미치는 요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V. 논 의

심리적 탈진은 스트레스에 의해 시작되는데 운동선수들의 경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운동을 그만두게 되는 최악에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운동선수에게 운동을 그만둔다는 것은 그간의 노력이 헛되게 되는 인생의 전환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힘든 일이다. 이에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태권도 선수들이 인식하는 심판판정이 심리적 탈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7년 전국대회에 참가한 176명의 선수들의 표본을 선정하여, 본 연구의 가설을 입증하였다.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A. 배경변인에 따른 심판판정 인식 차이

배경변인에 따른 심판판정 인식차이를 알아보는 것은 선수 및 지도자들의 교육자료로 활용가치가 높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 소속, 경력, 경기력에 따른 심판판정 인식차이를 확인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라 인식하는 심판판정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남자들의 여자에 비해 공정성 인식이 높았다. 일관성과 신속성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 같은 결과는 태권도 선수들의 심판판정 인식이 여자에 비해 남자가 높았다는 윤병인(2014)의 연구와 일치하며, 정청희와 홍길동(2002) 또한 여자들보다 남자들의 심판판정 인식이 높았다고 연구와도 일치한다. 이와 같이 여자들의 심판판정 인식이 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여자들의 심판판정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것을 시사하고 심판원들은 여자경기에서 보다 공정한 판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 소속에 따른 심판판정 인식차이는 신속성에 차이를 보였고, 대학부 보다 중등부가 높았다. 통계적 유의차가 없었지만 일관성과 공정성에서도 상대적으로 중등부의 심판판정 인식이 높았다. 임근석(2016)은 신속성에서 일반부 선수들이 대학부 선수보다 심판판정 인식이 높았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고, 김영진(2010)과 이재경, 이주형(2008) 또한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와 상반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첫째, 중등부의 경우 상하관계에 의해 심판판정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으로 생각되며, 두 번째, 임근석(2016)의 주장과 유사하게 경기 경험이 부족하여 판정결과를 예측하는데 다소 미흡하기 때문을 사료된다.

세 번째, 경력에 따른 심판판정 인식차이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이 같은 결과는 6-10년의 경력을 가진 집단이 가장 낮게 인식하였고, 11년 이상과 5년 이하의 순으로 공정성 인식이 높았다는 임근석(2015)과 경력이 많을수록 심판판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김영진(2010)의 연구와 상반된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상자들의 특성 때문이며, 본 연구 대상자들은 선행연구들과 달리 실업팀 선수들을 배제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즉 앞서 소속에 따른 차이에서 보고하였듯이 실업팀 선수들은 판정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네 번째, 경기력에 따른 차이에서 심판판정에 대한 차이는 없었다. 경기력을 입상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수선수 즉, 입상경력이 있는 선수의 경우 심판판정에 다소 긍정적일거라 예상하였지만 차이가 없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비교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심리적 탈진에 차이를 살펴보았다. 심리적 탈진은 운동을 중도포기하게 되는 요인으로 선수들의 선수생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배경변인에 따라 심리적 탈진에 대한 차이를 본다는 것은 선수들에게 심리훈련의 중요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심리적 탈진의 3가지 하위요인 모두에서 통계적 유의차를 보였다. 특징적인 부분은 세 가지 하위모두 여자선수들이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여성무용수들이 심리적 탈진에 쉽게 노출된다는 김선수(2010)의 연구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정서적으로 더 민감하고 예민하며, 체중관리와 같이 신체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공연에서의 배역으로 인해 공연부담과 같은 스트레스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으로 보고하였는데, 여자 태권도 선수들 또한 체중관리에 신경써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태권도에 대한 열정감소와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정서적 고갈과 같은 심리적인 증상을 더 느끼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여자선수들의 심리적 훈련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도자들은 여자선수들의 신체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체중감량과 같은 스트레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 소속에 따른 심리적 탈진에서 통계적 유의하였으며, 많은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3가지 하위요인 모두에서 대학부의 심리적 탈진빈도가 높았으며, 소속이 높아질수록 심리적 탈진 또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진학과 취업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대학생이 되면 선수생활의 정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대학진학 때와 달리 사회구성원으로 진출해야하고, 실업팀으로 진출해야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대학생집단에서 심리적 탈진이 높다는 것에 대해 대학지도자들은 다양한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세 번째, 경력에 따른 심리적 탈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3가지 하위변인 모두 경력이 많을수록 심리적 탈진이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제시한 소속에 따른 차이와 같은 결과로 보여진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네 번째, 경기력에 따른 심리적 탈진차이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탈진의 하위 변인 중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운동을 그만두어야 할 것인지를 의미하는 '정서적 고갈'과 생각하거나 계획한 대로 일을 해내는 능력이 저하되는 '수행저하'는 우수선수들도 더 높은 것을 목표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동반 상승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종합해 보면, 여자와 대학생, 경력이 많을수록 학업과 연습의 병행, 체중조절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해 오는 스트레스, 진로 및 장래문제에 대한 고민 등 다양한 심리적 문제로 인해 심리적 탈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심리상담과 같은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B. 심판판정에 대한 인식이 심리적 탈진에 미치는 영향

오준석과 윤기운(2015)의 연구에서는 심판판정의 일관성 부분에 대해 지적하였는데, 일관되지 못한 판정은 다음 수행을 위한 피드백을 얻지 못하게 되어 선수의 동기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며, 이를 위한 개선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여, 심판판정과 심리적 탈진과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태권도선수들이 인식하는 심판판정이 심리적 탈진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에서 유의한 영향관계를 밝혀냈다.

먼저, 심판판정이 심리적 탈진의 하위변인인 의욕상실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3가지 요인 모두에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서적 고갈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공정성과, 신속성, 일관성이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심리적 탈진의 하위변인 중 수행저하에서도 심판판정은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합해 보면 선행연구를 통해 설정된 심판판정이 심리적 탈진에 미치는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윤상(2015)은 품세선수들이 인식하는 심판판정이 운동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같은 결과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선수들이 시합장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경기 후 지속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스트레스가 탈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Smith(1986)의 주장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사료된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김선수(2010)의 주장과 같이 주위의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서 탈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이로 인해 탈진으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이규일 등(2011)은 운동을 중도 포기하는 과정에서 선수 스스로의 결정으로 중단하는 비율이 73.8%로 높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결과는 위 내용과 같이 심판판정에 대한 인식이 탈진으로 이어지지고 않고 지도자 또는 동료들과의 상담을 통해 완화되어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김지묵(2010)은 축구선수들의 심판판정에 대해 지도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여 본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태권도 선수들이 인식하는 심판판정은 선수들의 심리상태에 부정적으로 개입한다고 하였다(한기훈, 이진성, 2004). 즉 심판판정에 의해 의욕상실과 같은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심판판정이 의욕상실에 미치는 영향력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기 중 불공정한 판정이 이루어지면 즉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지도자가 현장에서 심판판정에 대해 명확한 답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판정에 대한 스트레스가 잔존하지 않아 의욕상실과 같은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심리적 탈진에서 수행저하는 운동을 중도 포기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수들이 인식하는 심판판정이 수행저하에 영향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체조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오준석과 윤기운(2015)의 연구와 상반된 결과이다. 이들은 심판의 영향력은 선수들의 심리상태 및 경기결과에 절대적이기 때문에 중도포기의도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체조의 경우 경기 수행 중 판정에 대한 어필을 할 수 없는 구조인 반면 태권도의 경우 경기 중 판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전자호구와 같은 객관적 평가와 함께 경기 중 판정에 대한 어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심판판정이 태권도 선수들의 심리적 탈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부정한 심판판정을 선수들이 인식하였어도 주위의 동료, 지도자들이 관심과 지지를 보낸다면 탈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보여 지며, 향후 연구에서는 심판판정과 스트레스 대처, 심리적 탈진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본 연구의 주장을 입증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Ⅶ. 결 론

본 연구는 태권도 선수들이 인식하는 심판판정과 심리적 탈진과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한태권도협회 소속된 176명의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태권도 선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으며,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변량분석, 회귀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경변인에 따라 태권도 선수들이 인식하는 심판판정과 심리적 탈진에 차이가 있었다.

심판판정에 대한 성별의 차이를 보면, 공정성에서 남자선수들이 여자선수보다 심판판정에 대해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에 따른 차이는 신속성에서 대학부 선수들보다 중등부의 선수들이 심판판정에 대해 높게 인식하였다. 경력에서는 차이가 없었고, 경기력에 따른 차이도 없었다.

두 번째, 심리적 탈진의 성별차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고, 소속에 따른 차이에서는 상급소속으로 갈수록 심리적 탈진이 높아졌다. 경력에 따른 차이에서도 경력이 많을수록 심리적 탈진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력에 따른 차이에서는 우수선수와 일반 선수 간에 차이가 없었다.

세 번째, 심판판정이 심리적 탈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심판판정에 대해 성별과 소속에 따라 차이를 보였고, 여자와 대학생, 경력이 많을수록 학업과 연습의 병행, 체중조절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해 오는 스트레스, 진로 및 장래문제에 대한 고민 등 다양한 심리적 문제로 인해 심리적 탈진을 경험하였다. 또한 심판판정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만 심리적 탈진으로 연결되지 않았고, 이것은 주위의 격려 등의 사회적 지지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변인들의 관계를 증명하여 심판판정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 심리적 탈진에 대처할 수 있는 요인을 추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참 고 문 헌

김사엽, 김희중(2000). 중 고등학교 하키 선수들의 심판 판정에 대한 의식 조사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39(3), 110-118.

김상겸, 문재태(2014). 헌법상 스포츠의 공정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심판 판정의 공정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스포츠와 법, 17(2), 71-99.

김선수(2010). 무용전공자들의 탈진과 심리사회적 변인과의 인과관계 분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김승철(2005). 스포츠심리학 핸드북. 서울: 도서출판 무지개사.

김영진(2010). 택견 경기에 심판판정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김용수(2010). 펜싱경기 심판판정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안. 한국스포츠학회지, 8(2), 11-22.

김윤상(2015). 중·고등학교 품새선수의 심판판정 인식이 운동지속의도 및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김지묵(2010). 중·고등학교 축구선수의 심판판정에 대한 인식도와 운동스트레스 및 인지된 경기력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진영(2007). 축구심판에 대한 중·고등학교 여자축구선수들의 인식도 조사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노원택(2008). 축구선수들의 심판인식도 조사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박대성(2007). 경기태권도 심판판정에 대한 인식이 선수들의 심리상태 및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박병진(2013). 태권도 선수들의 전자호구 만족도가 심판판정의 공정성과 경기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심미현(2014). 에어로빅체조선수의 운동스트레스가 운동지속수행 및 운동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안영선(2014). 아마추어 태권도경기에서 환경적 요인이 심판판정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오준석, 윤기운(2015). 여자 기계체조선수들이 인식하는 심판판정과 지각된 경기결과 간의 관계. 코칭능력개발지, 17(2), 63-71.

유인영, 모창배(2010). 태권도경기 심판판정에 대한 대학선수들의 인식 조사.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5(4), 161-171.

윤병인(2014). 태권도 선수들의 심판판정에 대한 인식과 운동몰입, 스포츠 자신감 및 인지된 경기력의 구조적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윤희성(2014). 태권도 심판판정에 대한 선수들의 인식 및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이규일, 허창혁, 류태호(2011). 중·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의 중도탈락 원인 특성 및 개선방안. 체육과학연구, 22(3), 2189-2202.

이재경, 이주형(2008). 운동선수의 심판판정 인식과 운동의욕 및 인지된 경기력의 관계. 한국스포츠리서치, 19(5), 57-66.

이학준(2006). 심판오심과 도덕적 책임. 한국체육학회지, 45(6), 81-89.

임근석(2016). 태권도 선수들이 인식하는 심판판정과 경기력, 지속의도 간의 관계분석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정승태, 박동철(2008). 대학 검도선수들의 경쟁불안에 관한 연구. 대한검도학회지, 24(1), 6-19.

정청희, 홍길동(2002). 하키 선수들의 심판 판정 인식에 따른 심리 상태 및 경기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체육연구소, 23(1), 11-2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정현도(2011). 대학교 태권도 선수들의 심판판정 공정성에 관한 인식 분석.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6(3), 159-171.

조인철, 김영훈, 이병기(2002). 유도선수의 경쟁불안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용인대학교 체육학과 연구논총, 12(1), 312-322.

조정환, 남은경(2000). 여자대학생 건강체력 평가 기준 및 인터넷 자료개발. Proceedings of The 2000 Seoul International Sport Science Congress, 1115-1121.

최규환(2012). 태권도 심판판정과 선수의 경기운영 인식 및 팀성적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기훈, 이진성(2004). 태권도 선수들의 심판 판정 인식에 따른 심리상태 및 경기 영향도 분석. 인하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16, 95-116.

한순남(2006). 유도 심판에 대한 선수와 심판원의 인식도 차이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함정수(2013). 중·고등학교 품새선수들의 지각된 심판판정 인식이 경기스트레스 및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원.

Corbin, C, B., & Lindsey, R. (1994). Concepts of physical fitness. Dubuque, IA: Wm, C. Brown Communications.

Smith, R. (1996). Performance anxiety, cognitive interference, and concentration enhancement strategies on sports, In I.G. Sarason, G. R. Pierce, & B. R. Sarason (Eds.), Cognitive interference: theories, methods, and findings(pp.261-283). Mahwh, NJ: Erlbaum.

Smith, R. E.(1986). Toward a cognitive-affective model of athletic burnout.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8, 36-50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록>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귀하가 인식하는 심판판정과 심리적 탈진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한 설문지로, 향후 심판과 지도자, 선수가 판정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함양시키고, 태권도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자 하오니, 설문문항에 정성스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의 **응답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정답이 없으니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응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15분정도 될 것입니다.

귀하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채혜선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설문 1> 심판판정관련 설문지

※ 귀하가 가장 가깝게 판단되는 번호에 "✓" 의 방법으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솔직한 답변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공정성	1. 심판은 소속된 시·도의 팀과 관계없이 공정한 판정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심판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공정한 판정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심판은 다른 팀 지도자들의 부탁이 있어도 공정한 판정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심판은 편파판정 없이 공정한 판정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심판은 대표선수, 일반선수 관계없이 공정한 판정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신속성	6. 심판은 승·패 시 신속한 결정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심판들 간의 회의 후 신속한 결정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심판은 신속하게 경기운영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심판은 이의신청 시 빠르게 대처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반칙 시 신속한 결정을 내린다	①	②	③	④	⑤
일관성	11. 심판은 매 경기마다 동일한 기준으로 판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심판은 매 경기마다 동일한 점수를 표출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심판은 자신과 동일한 반칙을 상대방이 했을 경우 일관되게 판정을 내린다.	①	②	③	④	⑤
	14. 심판은 지도자가 항의해도 일관되게 판정을 내린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매 경기마다 태권도 경기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설문 2> 심리적 탈진 설문지

	★ 귀하의 솔직한 답변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심리적 탈진	1. 나는 요즘 정신적으로 피곤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요즘 완전히 녹초가 된 느낌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요즘 지쳐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요즘 이전에 잘 되던 기술도 힘들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요즘 연습을 해도 잘 안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요즘 태권도 실력이 감소하는 느낌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요즘 운동이 예전만큼 즐겁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요즘 태권도 연습장에 가는 것이 싫어졌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요즘 태권도가 내 길인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요즘 태권도를 그만두어야 할 지 아니면 계속 해야 할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요즘 태권도를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요즘 태권도가 내 천직일까 의심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요즘 태권도에 의욕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요즘 연습시간에 다른 생각들이 자꾸 떠오른다.	①	②	③	④	⑤
	15. 선생님의 조언은 경기력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 귀하와 관련하여 몇 가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성별 :
① 남자 ②여자

2. 소 속?
① 중학교 ② 고등학교 ③ 대학교

3. 운동경력? 약 ____년 ____개월

4. 입상경력? 최근 1년____대회 개인____위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Collection @ chosun